

##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 대한 고찰

함병호\*

– 차례 –

1. 서론
2. 인지 동사의 개념과 유형
3.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특성
  - 3.1. 의미적 특성
  - 3.2. 통사적 특성
4.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통사적 변이
5. 결론

---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강의초빙교수. loverforevery@hanmail.net

## [국문초록]

본고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고 통사적 제약과 조사 교체 현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원화자 = 인용 화자’의 관계를 맺어 인용절의 내용은 ‘재귀성(再歸性)’을 지니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원화자가 3인칭인 경우에는 인용 화자가 인용절의 정보를 듣거나 관찰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성립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발화 동사 인용 구문과 달리 화자가 문장의 명제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절에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의 결합에 제약이 있으나 이 어미들이 인용의 내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결합할 수 있으며, 대동사 ‘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 인지 동사는 인용절의 어미나 SEA 구문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는 사유의 주체가 바로 사유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용 동사에 능동형과 피동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인용절의 ‘이/가’ 성분이 모절의 ‘을/를’ 성분으로 교체될 때 이 성분은 대조 주체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을/를’ 성분은 대상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제어:** 인용 구문,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인지 동사, 주제, 대조 주제

## 1. 서론

본고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구문은 다른 문장의 형식과 다르게 인용절을 부사어로 요구하는 인용 동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sup>2</sup> 인용 동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1)과 같이 크게 ‘말하다, 주장하다’ 등과 같은 발화(發話) 동사와 ‘생각하다, 믿다’ 등과 같은 인지(認知) 동사로 구분된다.<sup>3</sup>

- (1) 가. 철수는 영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 발화 동사  
 나. 나는 영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 인지 동사

(1)에서 제시된 두 유형은 모두 인용 구문에 포함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발화 동사 인용 구문에 비해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절의 가능성’, ‘원화자의 인칭’, ‘인용절의 어미 결합’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sup>4</sup> 또한 인용절의 주어가 모절의 목적어로 교체되는 통사적인 변이 현상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이필영 1993, 채숙희 2013 등), 아직 그 전모가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가. 원화자의 인칭에 따른 인용 구문의 의미 특성  
 나.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통사적 제약

2 한국어학에서 인용절은 ‘완형 보문’이나 ‘완형 보절’로 불려왔는데, 직접 인용절은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고,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로 분석되기 때문에(구본관 외 2015, 함병호 2020 참조),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의 지위를 가진다.

3 인용 동사는 발화 동사와 인지 동사로 구분됨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더하여 해독 동사(‘듣다, 읽다’ 등)를 설정하기도 한다(이필영 1993, 박재연 2012, 정연주 2017 등).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논의된다.

#### 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주격과 목적격의 교체 현상

본고에서는 (2)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인지 동사의 개념과 인지 동사의 유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원화자의 인칭에 따른 인용 구문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고,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다양한 통사적 특성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이/가’와 ‘을/를’의 격 조사 교체 현상을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 2. 인지 동사의 개념과 유형

인지 동사는 ‘화자의 내적 사유, 인식, 지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이다.<sup>5</sup> 전술한 것과 같이 인용 동사의 유형은 크게 발화 동사와 인지 동사로 구분되는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인용(引用)의 의미 범위 때문에 인용 구문의 논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서자(庶子)’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원화자의 내적 사유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구문이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용에 대한 정의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을 인용 구문에 포함하지 않는 논의도 있다. 전영철(1990: 45)에서는 ‘인용이란 어떤 발화가 또 하나의 발화

5 채숙희(2013: 90)에서 인지 동사는 ‘피인용문을 취하여 인용구문을 형성하였을 때 음성으로 외현되지 않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유나 인식, 지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로 정의된다. 한편, 이현희(1994), 박재연(2012)에서는 ‘인지 동사’가 아닌 ‘사유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思惟)가 ‘생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인지(認知)는 ‘생각’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나타내고 여러 유형의 동사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인지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용 구문은 두 개의 발화 상황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지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들은 하나의 발화 상황만 형성하기 때문에 인용 구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 동사 인용 구문도 발화 동사 인용 구문과 동일하게 절의 성립에 인용 동사, 인용 표지, 인용절을 형식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며, 일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동사 인용 구문도 인용 구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동사를 고려하면 인용 구문은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언어 형식으로 옮겨오는 구문'으로 정의된다.

인용 구문의 인지 동사는 논자에 따라서 그 분류 기준과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sup>6</sup>

(3) 가. 이필영(1993): ① 사유 동사

: 생각하다, 알다, 보다, 믿다

② 심리 동사

: 생각하다, 느끼다, 결심하다, 걱정하다

나. 채숙희(2013): ① 외향 동사

: 생각하다, 보다, 생각되다, 느끼다, 믿다

② 내재 동사

: 치다, 가정하다, 판단하다, 알다, 이해하다

다. 박재연(2012): ① 포괄적 사유 동사

: 생각하다, 생각되다

② 양태 동사 ㉠ 인식 양태 동사

: 가정하다, 판단하다, 알다, 믿다

㉡ 동적 양태 동사

: 결심하다, 다짐하다, 계획하다

㉢ 감정 양태 동사

<sup>6</sup> 각 논의에서 제시한 예들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 느끼다, 걱정하다, 슬퍼하다

먼저, 이필영(1993: 44-45)에서는 인지 동사가 [-대외적]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7</sup> 그리고 사유적 인지는 어떤 사태에 대해 사유적 판단, 평가와 같은 인지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화수행적 성격을 띠지 않는 반면에, 심리적 인지는 어떤 사태에 대해 정서, 의지, 의문 등과 같은 심리적 인지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발화수행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심리 동사의 발화수행적 성격은 주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발화 동사의 발화수행적 성격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채숙희(2013: 93)에서는 직접 인용 가능성이라는 통사적 측면을 기준으로 직접 인용이 가능한 동사는 ‘외향 동사’, 불가능한 동사는 ‘내재 동사’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외향은 외적으로 실현되는 발화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내재는 ‘사유, 지각, 인식’ 등을 내적인 범위에서만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박재연(2012: 216-217)에서는 의미적 측면을 기준으로 사유 자체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과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생각하다’가 가장 무표적인 인지 동사이고 다른 인지 동사는 특수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Dixon(1991: 139)에서도 인지 동사를 ‘생각하다(thinking)’류의 동사로 묶고 인지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다’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8</sup>

이와 같이 인지 동사의 분류 기준은 논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의 분류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씩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

7 남기십(1973/1996: 157)에서도 인지 동사는 [-대외적](+동사), [+보문], [+완보], [+자발적]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8 예를 들어, Dixon(1991: 139-140)에서는 인지 동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consider: think about some actual or possible state of affairs.

나. imagine: think of something as if it were true, although the Cogitator is aware that it may not be true.

다. believe: think of something as true.

저, (3가)는 ‘생각하다’가 사유 동사와 심리 동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3나)는 인지 동사의 의미 특성이 분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3다)는 ‘포괄적 사유 동사’에 ‘생각하다’와 ‘생각되다’만 포함되어 분류 항목으로서 그 대상이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각하다’가 모든 인지 동사와 바뀌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지 동사의 주된 특성이 인용 구문에 사용되고 인용 구문이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인용 여부에 따른 (3나)의 분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접 인용의 가능성은 인지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향’과 ‘내재’가 인지 동사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다. 채숙희(2013: 94)에서는 외향 동사들이 내재 동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감정, 정서 등이 수반된 인지 행위의 표현과 좀 더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외향 동사와 내재 동사의 의미 차이가 무엇이며 이것이 직접 인용절의 가능 여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sup>9</sup> 그런데 이 동사들의 직접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들의 의미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의미 특성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가.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었다.

다. 나는 그 친구를/그 책을/그 사실을 믿었다.

(5) 가.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가정했다.

나. \*나는 ‘그가 범인이다.’라고 가정했다.

9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직접 인용 가능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도 쉽지 않다. 내재 동사들도 직접 인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 동사들은 간접 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다.

다. \*나는 범인을 가정했다.

라.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

외향 동사 ‘민다’가 사용된 (4)에서는 직접 인용도 가능하고 인용절 대신에 단순 명사 형식의 목적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에 내재 동사 ‘가정하다’가 사용된 (5)에서는 직접 인용이 가능하지 않고 단순 명사는 의미에 따라서 사용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범인’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은 목적어가 되기 어렵고, ‘상황’과 같은 사태와 관련된 단순 명사만을 취할 수 있다.

인용 구문에서 인용절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어 ‘내용역(contents)’의 의미역을 가진다(구본관 외 2015: 248).<sup>10</sup> 그런데 직접 인용절은 명사절로 분석되는 반면에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로 분석된다. 명사절은 ‘대상성(對象性)’의 의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가능한 외향 동사들은 논항의 사태가 대상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내재 동사들은 이러한 대상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재 동사들의 명제가 외향 동사들의 명제들보다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을 나타내며 ‘화자의 내재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위의 (5)에서 내재 동사 ‘가정하다’가 간접 인용절만을 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단순 명사를 취할 수 없는 것은 ‘가정하다’가 사태와 관련된 복잡한 사고를 나타낼 때 사용됨을 잘 보여준다.<sup>11</sup>

10 구본관 외(2015: 248)에서는 내용역을 ‘발화 동사, 사유 동사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절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정하다’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는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우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의미 기술을 통해서 ‘가정하다’가 복잡한 사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지 동사의 의미가 직접 인용절과 관련이 있다는 본고의 논의가 모든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채숙희(2013)에서 내재 동사로 분류한 ‘알다’ 등은 ‘너를 안다’와 같이 구체적 의미의 단순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는 ‘알다’와 같은 동사가 다의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논항 구조를 지닐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인지 동사가 다양한 논항 구조를 취할 수 있음은 우형식(1998: 140-163)을 참조할 수 있다.

### 3.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특성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내적 사유를 나타내는 구문이라는 점에서 발화 동사 인용 구문과 다른 의미 특성을 나타내며 여러 통사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3.1. 의미적 특성

우리는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관적 태도를 덧붙일 수 있는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6) 가.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나. 그 소설은 추리 소설이다.

(7) 가. 그녀는 좋은 사람이겠지.

나. 그 소설은 추리 소설일걸?

(8) 가. 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나는 그 소설은 추리 소설이라고 알고 있다.

(6)은 명제를 단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문장의 내용이 참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7)과 (8)에서는 각각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소설은 추리 소설이 아닐 수 있다. 추측의 양태 어미인 ‘-겠-’, ‘-을걸’이 사용된 (7)이나 인지 동사가 사용된 (8)은 문장의 내용이 참임을 전제하지 않으며,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7)의 양태 어미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청자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반면에 (8)의 인용 구문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청자에게 자신을 생각을 전달하기만 한다.

즉,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기본적으로 인용절로 나타난 명제의 내용에 대한 원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 때문에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우순조(1995: 60)에서는 ‘평가 구문’, 이필영(2005: 480)에서는 ‘판단 구문’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박재연(2012: 217)에서 ‘생각하다’와 ‘생각되다’를 제외한 인용 동사를 양태 동사로 분류한 것도 인지 동사가 인용절로 나타난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양태 용언을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는 김지은(1998: 25-26)에서는 ‘생각하다, 믿다, 예상하다, 추측하다’ 등의 인지 동사를 양태 용언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이 동사들이 표현하는 양태가 고유의 어휘적 의미 자체의 특성일 뿐 양태 표현을 담당하는 범주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9)와 같이 3인칭 주어가 나타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을 제시하면서 이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범주의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9) 가. 철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철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김지은 1998: 26)

(9)와 같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주어에는 3인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구문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원화자가 1인칭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화자에 대한 특성은 김영희(1988가: 193)에서 논의한 평가 구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한 평가 구문은 ‘NP1(는, 가) NP2가 Vstatic’로 발화되거나 이해되는 문장들로, ‘말할이가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나

타낸다.<sup>12</sup>

(10) 가. 나는 이 길이 멀다.

나. 나는 그 소년이 작다.

다. 나는 저 강이 푸르다. (김영희 1988가: 193)

(11) 가. 나는 이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나. 나는 그 소년이 작다고 본다.

다. 나는 저 강이 푸르다고 여긴다. (김영희 1988가: 194)

(10)은 평가 구문으로, ‘나는’으로 나타나는 화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 NP2에 대해서 상태 동사(형용사)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영희(1988가: 193-194)에서는 이러한 평가 구문의 기저 문장을 (11)과 같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과 동일하다고 보았다.<sup>13</sup> 즉, 평가 구문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과 동일한 기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논의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는 인용 화자가 1인칭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임을 잘 보여준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화자의 내적 사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원화자와 인용 화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12) 가. 철수는 민수에게 영희가 온다고 말했다.

나. 나는 영희가 온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인용 구문은 ‘원화자, 원청자, 인용절, 인용 동사, 인용 화자’로 구성된다. 위의 (12가)와 같이 발화 동사 ‘말하다’가 사용된 인용 구문에서 원화자는 ‘철수’, 원청자는 ‘민수’, 인용절은 ‘영희가 온다고’, 인용 동사는 ‘말하

12 김영희(1988가)의 평가 구문은 우순조(1995: 60)에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을 지칭하는 ‘평가 구문’과는 다른 것이다.

13 김영희(1988가)에서는 인지 동사를 ‘약한 단언 서술어’로 부르고 있다.

다’, 이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이 인용 화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12나)와 같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는 원화자와 인용 화자는 분리되지 않고 원화자가 바로 인용 화자가 된다.<sup>14</sup> 즉, ‘원화자 = 인용 화자’의 관계를 맺게 되며, 인용절의 내용은 원화자 자신이 머릿속에서 인지한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 형식으로 다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재귀성(再歸性)’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원화자 = 인용 화자’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9)와 같이 모절에는 3인칭 주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화자와 인용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9)에서 ‘철수’가 생각하는 내용을 인용 화자가 어떻게 알고 언어적으로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他人)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즉, 타인의 사고는 외적인 관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설 등의 전지적 관점이 아니라면 3인칭으로 나타난 타인의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 모절에 3인칭 주어가 사용된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인용 화자가 원화자의 사유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얻은 정보임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아래의 (13)과 같이 인용 화자가 원화자와 대면(對面)한 상황에서 인용절의 내용을 직접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13) 철수: 나는 영희가 온다고 생각해.

→ 인용 화자: 철수는 영희가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시각적인 외부 관찰을 통해서 인용 화자가 원화자의 사고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원화자가 사

14 인지 동사에서 주체는 인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자’보다는 ‘원인지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Dixon(1991: 139)에서는 ‘생각하다(thinking)’류의 주체를 ‘인지자(cogitator)’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인용 구문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는 ‘원화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고하는 내용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인용 화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화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언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14) 가. 철수는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결심했다.

나. 철수는 눈이 온다고 걱정했다.

(15) 가. 철수는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나. 철수는 눈이 온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

(14)에서 ‘결심하다’, ‘걱정하다’와 같은 인지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용 화자는 원화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고를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원화자가 주먹을 쥐고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보이면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눈이 오는 창밖을 보면서 표정이 좋지 않으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 인용 화자는 자신이 추측한 내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5)와 같이 ‘-는 것 같다’ 등의 추측의 표현을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구문이기 때문에 인지의 주체인 원화자가 1인칭으로 나타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용 화자가 원화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듣거나 원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고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화자가 3인칭 주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인용 구문은 화자의 명제 형성의 관여라는 점에서 단문(短文)과 차이를 보인다. 문장이 명제와 양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문장의 핵심인 명제 내용의 구성은 전적으로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영역이다. 그러나 인용 구문의 명제는 원화자와 인용 화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명제의 내용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인용 구문에서 인지 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화자가 문장의 명제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발화 동사보다 높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화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동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것이

다.

(16) 가. 철수는 내일 회를 먹는다고 말했다.

나. 나는 내일 회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발화 동사가 사용된 (16가)에서 문장의 주된 정보는 인용절로 나타난 ‘내일 회를 먹는다’이다. 그런데 이때에 인용 화자는 인용절의 내용 형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반면에 인지 동사가 사용된 (16나)에서 인용절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문장을 발화하는 인용 화자 자신이다. 따라서 이때의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화자의 명제 내용 관여도가 단문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

### 3.2. 통사적 특성

인지 동사 인용 구문과 발화 동사 인용 구문의 통사적 차이는 원청자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다. 전자에는 원청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 ‘에게’의 여격어가 나타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절에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되기 어렵다(이필영 1993, 채숙희 2003 등).

(17) 가. \*철수는 ‘뛰어라.’라고 생각했다.

나. \*철수는 ‘함께 뛰자.’라고 생각했다.

(17)에서 ‘생각하다’는 직접 인용절을 취할 수 있는 인지 동사인데, 인용절에서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가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간접 인용절의 형식에서는 이 어미들의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8) 가. 나는 뛰라고 이해했다.

가'. 나는 뛰라는 의미/말로 이해했다.

가". 나는 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나. 나는 함께 뛰자고 받아들였다.

나'. 나는 함께 뛰자는 의미/말로 받아들였다.

나". 나는 함께 뛰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18가, 나)는 명령과 청유형 어미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인용절이 직접적인 화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8가', 나')와 같이 명령과 청유형의 언어적 내용으로 사용된다면 명령과 청유형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의 인용절은 '것' 명사절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인용절의 어미 결합과 관련하여, 인지 동사가 쓰인 직접 인용절은 내적 사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독백(獨白) 형태의 종결어미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간접 인용절에서는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되기 어렵다(이필영 1993: 47-48 참조).

(19) 가. 나는 '내일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가'. ?나는 '꽃이 예쁘네.'라고 생각했다.

나. 철수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

(20) \*철수는 영이가 참 빠르더라고 생각했다. (이필영 1993: 47)

(19가)의 직접 인용절에는 감탄형/양태 종결어미 '-구나'가 사용되었고, (19나)의 직접 인용절에는 자문(自問)으로도 불리는 독백 의문문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인지 동사와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있다. 그런데 (19가')와 같이 어미 '-네'의 사용은 '-구나'의 사용보다 자연스럽게 않다. 이는 '-네'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각만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지만, '-구나'는 현장 지각 뿐만 아니라 추리와 사유의 내용에도 사용될 수 있어서 인지 동사 '생각하다'

와 그 의미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20)에서는 인지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인용절 내부에 어미 ‘-더-’가 사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더-’는 관찰한 내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법 형태인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는 원청자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필영(1993: 48)에서는 ‘-더-’가 ‘과거 인지’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일부 인용 동사는 대동사 ‘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데,<sup>15</sup> 인지 동사도 그 의미 유형에 따라서 ‘하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21) 가. 나는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했다.

나. 나는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했다.

다. 나는 내일 비가 오겠다 했다.

(21)은 인지 동사 ‘생각하다’가 대동사 ‘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 채숙희(2013: 101-103)에서는 인지 동사의 경우 직접 인용 구문에 쓰인 인지 동사만 ‘하다’로 대치가 가능하고 ‘하다’로 대치되면 발화의 인용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21나)에서 ‘생각하다’가 ‘하다’로 교체되었을 경우에 교체된 ‘하다’는 ‘생각하다’가 아닌 ‘말하다’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21다)와 같이 인용절에서 인용 표지를 생략하면 ‘하다’는 ‘말하다’의 의미가 우세하지만 ‘생각하다’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인용 표지가 없을 때 ‘하다’가 ‘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먼저 양태 어미 ‘-겠-’과 ‘추측’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싶다/보다/하다’ 구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5 인용 구문에 사용되는 ‘하다’는 이필영(1993)과 채숙희(2013)에서 ‘포괄 동사’로 불린다.

이는 발화 동사나 인지 동사 등의 인용 동사를 대신하여 포괄적으로 쓰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 나는 내일 비가 온다 했다.

(22)와 같이 인용절에 어미 ‘-겠-’이 결합하지 않으면 ‘하다’는 ‘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인용절의 양태 어미와 인용 동사가 호응하는 현상을 박재연(2012: 218)에서는 양태 동사 구문에서 원발화의 양태적 의미가 인용 동사에 복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용절에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어미가 나타나면 이에 이끌려 후행하는 동사는 인지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23) 가. 철수가 학교에 갔나 싶다.

나. 철수는 숙제를 다 했나 보다.

다. 철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나 한다. (엄정호 2005: 15)

(23)은 엄정호(2005: 15)에서 제시한 SEA(sentence ending+auxiliary) 구문이다.<sup>16</sup> 이 구문들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용 표지가 없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23)과 동일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23다)에서는 SEA 구문에서 ‘하다’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EA 구문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 사용된 ‘하다’가 ‘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통사적 특성은 ‘명사+-하다’ 형식의 인지 동사들이 ‘명사+-되다’의 형식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아래의 (24)와 같이 일부 인지 동사들은 문장 구조의 변화 없이 능동형과 피동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24)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생각되었다, 이해했다/이해되었다, 판단했다/판단되었다}.

16 ‘SEA 구문’은 엄정호(2005: 15)에서 문장의 종결어미 다음에 보조 용언이 나오는 형식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이다.

채숙희(2013: 95)에서는 ‘생각되다’가 사용된 인용 구문에서 행위자 강등이나 피동자 승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각되다’가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17</sup> 또한 박재연(2012: 216)에서는 ‘생각하다’는 적극적인 사유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생각되다’는 소극적인 사유 행위로서 확신의 정도가 떨어지는 차이점만 있다고 하였다.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동사의 ‘능동-피동’이 구조의 변화 없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사유의 원화자와 인용 화자가 일치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유의 주체가 바로 사유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가 항상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다.

(25) 가.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26) 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했다.

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되었다.

(25)와 같이 인지 동사가 능동일 경우에는 모절에 여격 주어가 사용될 수 없지만, 피동일 경우에는 여격 주어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6)과 같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인지 동사가 능동일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피동일 경우에는 사용되기 어렵다.

17 연재훈(2011: 125)에서는 통사적 상승이나 하강이라는 개념은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러 언어에서 ‘피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구문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 4.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통사적 변이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아래와 같이 간접 인용절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교체 현상으로 인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sup>18</sup>

(27) 가. 철수는 영희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나. 철수는 영희를 천사라고 생각한다.

(27가)에서는 인용절의 주격 ‘영희가’는 목적격 ‘영희를’로 바뀔 수 있는데, 먼저 이 목적격 성분이 모절과 인용절 중에서 어느 성분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영희(1988나: 275)에서는 (27)의 현상을 ‘주어 올리기(subject raising)’라고 부르며, 둘의 기저 구조를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목적격 성분을 모절이 아닌 내포절의 성분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목적격 성분이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고, 문장 부사가 목적격 성분 뒤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이선희 2004: 77-81 참조), 목적격 성분을 모절의 성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

(28) 가. 사람들이 영수가/영수를 바보라고 믿었다.

나. 영수가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믿어졌다.

다. 사람들이 영수를 어리석게도 바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이/가’가 ‘을/를’로 교체되는 이유를 의미

18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교체 현상은 인지 동사 인용 구문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발화 동사 인용 구문, 사동 구문이나 피동 구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주요 특성으로 다루어져 왔다.

가. 김 교수는 그 이론이/그 이론을 틀렸다고 주장했다. (발화 동사 인용 구문)

나. 철수는 그가/그를 집에 가게 했다. (사동 구문)

다. 영희가 철수에게 손목이/손목을 잡혔다. (피동 구문)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논의는 많지 않다. 이를 가장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필영(1993: 80-84)이다. 여기에서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의 목적격 성분이 ‘판단대상적 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성분이 주제가 됨은 ‘특정성’이나 ‘총칭성’이라는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판단대상이 된다는 것은 판단 주체가 이미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신서인(2009: 209-210)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고 인용 동사 ‘생각하다’의 인용절에서 ‘을/를’이 ‘-에 대해서’로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을 제시하면서 ‘을/를’을 주제 표지라고 주장하였다.

(29) 가. 그는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 그는 {그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했다.

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이필영 1993: 82)

(30) 가. 그는 {꽃은, ??꽃을} 장미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 그는 {코는, ??코를} 코끼리가 제일 길다고 생각한다.

(이필영 1993: 84)

(29가)에서 ‘세 사람을’이 불가능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며, (29나)의 ‘그 세 사람’과 (29다)의 ‘사람’은 알려져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격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30)에서는 ‘은/는’이 결합한 주제 성분이 목적격 성분으로 나타날 수 없는데, 이필영(1993: 84)에서는 판단대상은 언제가 언급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언급대상이 언제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문 내용과 보문 주어 사이의 ‘판단대상 - 판단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30)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목적격이 자연스럽게 않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조사 교체 현상을 정보구조

(information structure)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sup>19</sup> 문제의 목적격 성분이 주제로 분석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1) 가. 너는 {누가, \*누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나.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철수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의문사는 초점(focus)을 나타내는 성분인데, (31가)와 같이 인용 구문의 목적격 성분은 의문사 ‘누구’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이 성분이 초점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또한 (31나)의 목적격 성분은 모절의 성분이기 때문에 어순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철수를’과 ‘좋은 사람이라고’가 ‘주제(topic)-언급(comment)’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언급’의 성분들은 고정된 어순을 요구한다. 그런데 인지 동사 인용 구문에서 목적격 주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32) 가. 한국어의 주제 표지는 ‘은/는’인데, 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격 표지 ‘을/를’이 사용되는가?

나. 한 문장에서 문두(文頭)에 주제가 있는 것인데, 문중에 주제가 다시 출현할 수 있는가?

(32가)는 인용 구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데에 전형적인 주제 표지 ‘은/는’ 대신에 ‘을/를’이 사용되는 현상에 대한 것이고, (32나)는 한 문장 내에서 주제 표지가 여러 번 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정보구조 논의에서는 논쟁이 되는 부분으로, ‘을/를’이 주제 표지로 사용되는 것과 한 문장에 주제가 두 번 사용되는 것은 정보구조 논의에서 널리 수용되지는 않는다.

19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화자와 청자의 지식이나 의식 상태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이 반영되어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문장의 구조이다(함병호 2021: 128 참조). 이필영(1993: 84)에서는 조사 교체를 정보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제’는 정보구조의 정보 단위이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인용절 내의 주제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른 내포절과 다르게 인용절에는 주제 표지 ‘은/는’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인용절에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종결 어미가 나타나면 문장에 화용적 표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런데 인용 구문에서 목적격 표지 ‘을/를’이 아닌 조사 ‘은/는’이 사용되어도 이 성분은 판단대상적 주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 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다.’에서도 ‘판단대상 - 판단 결과’의 의미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판단대상’이라는 의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용절에서 ‘을/를’의 출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보구조에서 각 조사의 기능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3) 가. 나는 [그 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 나는 [그 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다. 나는 그 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했다.

(33가-다)에서는 인용절의 주격 조사 ‘이’가 ‘은’과 ‘을’로 교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그 세 사람’에 ‘이’와 ‘은’이 결합한 성분은 인용절의 성분이고 ‘을’이 결합한 성분은 모절의 성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지 동사의 전형적인 주어는 ‘원화자 = 인용 화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 ‘는’이 결합한 모절의 주어는 우선적으로 문장의 주제 성분으로 분석된다. 즉, (33)의 문장들에서 문두의 ‘나는’은 주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33나)의 ‘그 세 사람은’과 (33다)의 ‘그 세 사람들’의 주제 기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sup>21</sup>

먼저, (33나)에서 ‘은’이 결합한 성분은 인용절의 성분이고 인용절은 모절과 분리되어 주제를 가질 수 있다. 이때에는 각 절에 독자적으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에 주제 하나’라는 기존의 주제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0 이와 동일한 이유로 ‘나는 그 친구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와 같이 동격 관형사절에도 주제 표지 ‘은/는’이 나타날 수 있다.

21 (33가)에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그 세 사람이’는 주제가 아닌 초점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을’이 결합한 성분은 모절의 성분으로, 이 성분이 주제를 나타낸다면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 문장에 주제가 두 번 출현하는 것이 된다.

(34) [나는]<sub>주제</sub> [그 세 사람을]<sub>주제</sub> 죽었다고 생각했다.

한 문장에 주제가 두 번 출현할 수 있음은 함병호(2018: 86)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제의 성격이 다르면 한 문장에 주제가 두 번 출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35) [겨울에는]<sub>틀</sub> [우리는]<sub>언급대상성</sub> 여수에 간다. (함병호 2018: 86)

(35)에서 ‘겨울에는’은 서술의 시·공간 영역을 제한하는 ‘틀 주제’이고 ‘우리는’은 일반적인 주제의 특성을 지닌 ‘언급대상성 주제’로 분석된다. 즉, 모두 주제 성분이지만 그 기능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인용 구문의 ‘을/를’ 주제에 적용해 보자. (34)에서 주제인 ‘그 세 사람을’은 문두의 주제인 ‘나는’과 다른 성격을 지닐 때 나타날 수 있다. 신서인(2009: 210)에서는 인용 구문에 출현하는 ‘을’ 성분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새롭게 제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34)의 ‘그 세 사람을’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세 사람’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 성분이 대조 주제(contrastive topic)로 분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대조 주제는 일반 주제와 달리 ‘발화자가 대안집합의 비선택 대상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주제이다(함병호 2018: 133). (34)의 ‘그 세 사람을’은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사람의 대안집합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때에는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화자의 관심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제시된다는 의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이 새롭기 위해서는 대조되는 대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고는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고 통사적 제약과 조사 교체 현상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직접 인용이 불가능한 인용 구문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사고 내용을 나타내며, 화자의 내재화가 더 강하다.

둘째,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인용절로 나타난 명제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따라서 ‘원화자 = 인용 화자’의 관계를 맺어 인용절의 내용은 ‘재귀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원화자가 3인칭인 경우에는 인용 화자가 인용절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관찰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발화 동사 인용 구문과 달리 화자가 문장의 명제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다.

넷째, 인지 동사 인용 구문은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절에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에 제약이 있으나 이 어미들이 간접 인용절에서 직접적인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용의 내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결합할 수 있다.

다섯째, 대동사 ‘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 인지 동사는 인용절의 어미, SEA 구문에 영향을 받는다.

여섯째, 문장 구조의 변화 없이 인지 동사에 능동형과 피동형이 모두 사용될 수 이유는 사유의 주체가 바로 사유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동형과 피동형의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곱째, 인용절의 ‘이/가’ 성분이 모절의 ‘을/를’ 성분으로 교체될 때 이 성분은 대조 주제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용 구문에는 새롭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ABSTRACT]

**Review on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Ham, Byeong-ho(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and to examine syntactic constraints and the phenomenon of substitution of Josa.

First, the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expresses subjective judgment on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speaker = quotative speaker’ is established, and the content of the quotative construction has ‘reflexivity’. However, if the original speaker is in the third person, an additional requirement is required that the quotative speaker directly hear or observe the information in the quotative clause.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have restrictions on the combination of imperative and propositive endings, but they can be combined when these endings are used as the content of a quotation. Cognitive verbs that can be replaced with the ‘하다(hada)’ are affected by the ending of the quotative clause, the so-called SEA construction. In some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both the active and passive forms can be used because the subject of thought is the object directly affected by the act of thought.

In the cognitive verb quotative construction, when the quotative

construction 'i/ka' component is replaced with the 'ul/lul' component, this component is analyzed as a contrastive topic.

**Key words:** quotative construction, direct quotative clause, indirect quotative clause, cognitive verb, topic, contrastive topic

## [참고문헌]

### ■ 단행본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엄정호(2005),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태학사.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탑출판사.
- 정연주(2017), 『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태학사.
-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 Dixon, R.M.W.(1991),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 논문

- 김영희(1988가), 「단언 구문의 문법 현상」,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집문당, 133-159면.
- 김영희(1988나), 「주어 올리기」,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집문당, 269-288면.
- 남기심(1973/1996), 「국어의 완형보문법」,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133-254면.
- 박재연(2012), 「인용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 미학회, 205-229면.
- 신서인(2009),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1-212면.

- 안명철(1998), 「동사구 내포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517-550면.
- 우순조(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98, 국어학회, 59-98면.
- 이필영(2005), 「인용구문의 의미 특성 연구」, 『언어』 30, 한국언어학회, 479-493면.
- 전영철(1990), 「한국어 인용동사에 관하여」, 『언어연구』 1,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41-54면.
- 함병호(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함병호(2020),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국제언어문학』 47, 국제언어문학회, 343-375면.
- 함병호(2021), 「한국어의 주제」,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127-169면.